

근대 한일어 대역자료 『交隣須知』를 통한 한일 양국어의 통시적 연구(1)*

— 한국어를 중심으로 —

片茂鎮**

(e-mail: mjpyon@dankook.ac.kr)

目次

1. 들어가기
 2. 연구 방법 및 목적
 3. 음운적인 측면
 4. 표기적인 측면
 5. 어법적인 측면
 6. 어휘적인 측면
 7. 마무리
-

1. 들어가기

『交隣須知』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국어학습서로서, 18세기 초에 성립된 이후 약 200여 년간 20여 종의 異本이 존재하는 韓日語 対訳資料로서 유명하다. 동시에 本書는 양국 언어의 통시적 연구자료로서도 절호의 가치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苗代川本>은 18세기 초에 성립한 原「交隣須知」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古写本으로 그 언어는 대략 18세기의 언어를, 역시 필사본인 <서울대본>과 같은 增補本類는 19세기 전반, 그리고 1881년에 간행된 <初刊本>은 19세기 후반, 이어서 明治37年(1904)에 간행된 <校訂本>은 20세기 초의 양국어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필자는 지

* 본 연구는 2011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단국대학교 교수 일본어학

금까지 이 『交隣須知』를 이용한 양국어의 통시적 연구를 계속해 왔다. 그것은 주로 표제어 한자에 대응하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어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筆写本과 刊行本(初刊本)의 한일어, 또는 간행본 중에서 초간본과 교정본 사이의 언어변화에 주목하여 그 변화상을 고찰한 것이었는데(「『交隣須知』筆写本과 刊行本の 일본어 어휘 비교」(『일본문화학보』 45), 「『交隣須知』筆写本과 刊行本の 한국어 어휘 비교」(『일본문화학보』 49), 「刊本類『交隣須知』에 의한 한일 근대어의 통시적 연구」(『일본문화학보』 55), 이번 연구에서는 사본류와 초간본 그리고 교정본을 한데 묶어 대상으로 하고, 양국어 중에서도 특히 한국어의 두드러진 언어현상을 중심으로 통시적 해석을 시도한다.

2. 연구 방법 및 목적

주지하는 바와 같이, 17세기부터의 근대 한국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대부분의 변화는 이미 16세기 말 임진란 이전의 후기 중세 한국어에 일어났던 것으로, 임진란 이후에 근대적 면목을 띠고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기문 1972:185). 18세기 초에 成立·伝写된 『交隣須知』는 물론 전체적으로 근대 한국어를 반영하고 있는 문헌이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언어현상이 표출되어 있다. 우선 写本類 중에서 유일하게 欠本이 없는 古写本類 <苗代川本>(이하 <苗>로 略記)을 기준으로, 이 <苗>가 刊本類인 初刊本(이하 <初>로 略記)과 校訂本(이하 <校訂>으로 略記)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표출된 두드러진 언어현상을 중심으로 18, 19, 20세기의 3세기에 걸친 한국어의 변화상을 통시적 고찰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増補本類와 再刊本の 언어적 요소도 함께 다루도록 한다¹⁾. 이하 한국어의 언어현상에 대하여 음운적, 표기적, 어법적, 어휘적인 측면으로 구분하고, 사본류와 간본류 사이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언어현상을 중심으로 본서의 한국어에 대한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음운적인 측면

전 시대에 비교하여 근대어의 특징을 이루는 音韻史的 變化에는 여러 가지

1) 증보본류의 일부로, <対>는 対馬本(1855년경 筆写), <ノ>는 서울대본(1868년~1873년), <濟>는 濟州本(1880년), <會>는 Aston本 朝鮮語會話書[仮題](1885년), <武>는 武藤本(1873년)의 略称이다. 그리고 재간본은 초간본의 판(版)으로 2년 뒤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재차 간행된 것이다(<再>로 略記).

가 있지만²⁾, 그 중에서 語頭의 硬音화와 激音화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1) 硬音化

한국어의 어두 파열, 마찰음인 ‘ㄱ, ㄷ, ㅂ, ㅅ, ㅈ’은 16세기부터 경음화로 동요되고, 17세기 말부터는 거의 경음화가 완성되어 18세기 이후에는 ㅅ계 된소리 표기로 사용되었다(김형주1996:263). 『交隣須知』는 18세기 초에 原祖本系古写本이 성립된 이후, 18세기 말에서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증보본계 사본류를 중심으로 伝写되어 사용되어 오다가 1884년에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³⁾. 당연히 『交隣須知』에서도 이와 같은 경음화 음소의 표출이 기대된다.

[1822]⁴⁾

<苗/二03a> 雉 아모 일의나 ㅍ이 쓰는 사름을 경기 까토리라 ㅎ읍니
 <初/一56b> 鳩 나히 어리고 약은 사름을 경기 가투리라 허읍느니
 <校訂/080> 雌鳩 나히 꺄고 약은 사름을 경기(京畿) 가토리라 ㅎ오

[2407]

<苗/二37b> 花枯 꽃치 죽어시니 다른 것을 화병의 고자라
 <ㄹ/二41a> 花枯 꽃이 죽어시니 다른 꽃을 화병의 소자라
 <初/二29b> 花枯 꽃치 물나쓰니 다른 꽃을 화병의 소즈라
 <校訂/052> 花枯 화병(花瓶)에 꽃치 물났스니 드른 꽃을 소자라

[2381]

<苗/二35b> 根 블희 업서 초목이 살가 보온가
 <初/二28b> 根 썩이 업스면 초목이 살가 본가
 <校訂/046> 根 뿌리가 업스면 초목(草木)이 엇지 살가 보나

[1822]의 예처럼 <苗>에서 語頭에 경음인 것에 비하여 간본류에서 평음인 경우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苗>에서 증보본을 거쳐 간본류로 갈수록 어두의 평음 ‘ㄱ, ㄷ, ㅂ, ㅅ, ㅈ’이 ㅅ계 합용병서로 경음화되는 경향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語中에서도 동일하다. 단 어중에서는 교정본보다도 초간본에 경음 표기가 일반적인데, 이는 표기법상의 문제로, 초간본에서 발음을 중시한 형태 음소적 표기를 취한 결과로 보인다.

2) 근대 한국어의 특징에 대하여는 홍윤표(1994:41-45) 참조.
 3) 제이본(諸異本) 『交隣須知』의 계통에 대해서는 편무진(2005a) 참조.
 4) 『交隣須知』의 본문을 이루는 용례문은 약 3,300여 개가 되는데, 그것들을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가지는 것으로 이본 간의 용례를 재구성한 다음에 붙인 고유번호이다. 자세한 것은 拙著 『諸本对照 交隣須知』 참조.

[2123]

- <苗/二16a> 鰍魚 반지썸 사람을 밋그리 호쥬라 니르옵네
 <初/二10a> 鰍魚 일을 잘 아니 허고 썸썸로 싸져 가는 놈을 밋쓰리 식기라 허옵네
 <校訂/090> 鰍魚 일을 잘 아니 허고 썸썸로 싸져 가는 놈을 밋그라지 식기라 허옵네다

[1010]

- <苗/一01b> 日蝕 일식홀 적의 대야의 물을 담아 옮겨 보면 분수를 아옵네
 <対/一01b> 日蝕 일식홀 적은 통의 물 담고 보면 分数(분수)를 아옵네
 <初/一01b> 日蝕 일식홀 적의 통의 물 담꼬 보면 분수를 안다 허옵네다
 <校訂/003> 日蝕 일식(日蝕)홀 때에 통(桶)에 물을 썸 놇코 보면 먹는 분수(分数)를 안다 허옵네다

간행본에는 이 경음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단 原祖本系의 古写本類에 속하는 <苗>에는 아직 어두에서 평음의 형식으로 사용된 중세어적인 예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당시 평음에서 경음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적인 음운변화의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苗>와 간본류 사이에 증보본류가 있어 어두 경음화의 일반화 과정을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세 한국어에서는 ‘ㅅ’ 또는 ‘ㄷ’에 한하여 후행하는 평음을 경음화하였지만, 근대 한국어에 들어서면 서부터 ‘ㄷ’뿐 아니라 ‘ㅂ’이나 ‘ㄱ’도 후행하는 평음을 경음화함으로써 경음화가 전면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용언의 어간 말음이 비음 ‘ㄴ, ㄹ’인 경우에 후행하는 평음을 경음화하는 표기의 예는 19세기 중반 이후의 문헌에 나타난다고 한다(전광현1997:43). 증보본류에서 ‘담고’이었던 것이 초간본에서는 ‘담꼬’로 접속어미 ‘고’가 경음화한 것은 그러한 시대언어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交隣須知』에서는 경음과 격음의 발음적 가치를 혼동한 예들이 고사본류를 중심으로 많이 나타난다.

가령 ‘으뜸’의 예를 들면, 『交隣須知』에서는 ‘웃듬, 웃툼, 웃썸’의 3가지 형태가 나타난다.

	苗代川本	初刊本	校訂本
웃듬	4	1	1
웃툼	12		
웃썸	2	11	

[1556]

- <苗/一41b> 父母 부모를 썸기고 효도를 힘써 허는 거시 웃툼이오니

<처/—47b> 父母 부모를 섬기고 효도를 힘써 하는 거(시) 웃들이오니
 <初/—38b> 父母 부모를 섬기고 효도를 심써 하는 거시 힝실에 웃들이오니

이처럼 <苗>에서는 특히 경음발음을 격음으로 표기하는 특징을 보인다.

[2599]

<ㅅ/三08b> 瑪瑙 마노 갓 근도 보기 돋스와
 <初/三05b> 瑪瑙 만오 쌩 쓴도 보기 돋스와
 <校訂/240> 瑪瑙 만호 갓 쓴도 보기 돋소

한편 위의 예처럼, 초간본에서는 평음의 경음화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동시에 ‘쌩’과 같은 과잉 경음화 표기도 나타난다. 당시 경음화 현상의 일반적 성향을 엿볼 수 있는 예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표기적인 측면 부분에서 이어서 다루기로 한다.

(2) 激音化

어두 격음화는 격음 음소 형성과 더불어 중세 한국어를 거쳐 근대 한국어에서 일반화한 음운현상이다. 이 어두 격음 음소는 고대 후기 한국어 시기에 독립 음소로 형성되어 16세기를 지나면서 광범위해졌다. 그리고 17세기 이후의 근대 시기에 와서는 어두나 어중의 평음에서도 격음화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김형주1996:266).

[3222]

<苗/三16b> 鑷子 족집개는 덜 씹는 거시라
 <ㅅ/三43b> 鑷子 족집개는 쌩 씹는 거시라
 <濟/三43b> 鑷子 족집개는 덜 씹는 거시라
 <初/三29b> 鑷子 족집개는 뽕 씹는 거시라
 <再/三29b> 鑷子 족집개는 덜 씹는 거시라
 <校訂/211> 鑷子 족집개는 덜을 씹는 거시니라

평음의 경음화와 마찬가지로, 『交隣須知』에서도 어두 평음의 격음화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고사본류의 <苗>에 평음의 예가 나타난다. [3222]의 예처럼 <苗>에 평음의 ‘덜’이 보인다. 이 ‘덜’이 이후의 증보본류와 간본류에서는 ‘덜’로 격음화하게 되는데, <ㅅ>와 같은 증보본류에서는 사계 경음표기 ‘쌩’, 초간본에서는 역시 사계 경음표기 ‘뽕’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일부 사본

류(중보분류)와 간분류(초간본)에서 경음표기와 격음표기의 혼동이 일어나는 것은, 필사자나 편집자가 일본인으로, 자음음소에 平音·激音·硬音의 대립이 없는 모국어(일본어)의 간섭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면, 역시 다음과 같이 <苗>에서 평음인 것이 중보분류와 간분류를 거치면서 격음화 하는 예들이 대부분이다.

[2183]

<苗/二21a>	米	부른 쌀로 <u>블</u> 을 그라 썰러흔 옷시 <u>블</u> 을 머겨라
<ソ/二19a>	米	부른 쌀로 <u>플</u> 을 그라 썰러흔 옷시 <u>플</u> 을 먹겨라
<初/二14b>	米	부른 쌀노 <u>플</u> 을 쑤어 썰너흔 옷세 <u>플</u> 먹여라
<校訂/057>	米	부른 쌀노 <u>플</u> 을 쑤어 썰너흔 옷세 먹여라

[2255]

<苗/二26b>	甘苔	감티는 <u>브래</u> 느물이라
<ソ/二26b>	甘苔	감티는 <u>브래</u> 를 니르느니
<初/二19b>	甘苔	감티를 <u>프래</u> 느물이라 허느니
<校訂/065>	靑苔	<u>프린</u> 는 장(醬)에 못쳐서 반찬(飯饌) 허는 거시니

[3173]

<苗/三13a>	桶	<u>동</u> 의 물 기러 오느라
<ソ/三38b>	桶	<u>통</u> 의 물 기러라
<初/三26a>	桶	<u>통</u> 에 물 기러라
<校訂/213>	桶	<u>통</u> (桶)에 물 기러라

[3074]

<苗/三06a>	漱之	<u>양지덜</u> 하게 물 썬 오느라
<濟/三31a>	漱之	<u>양지덜</u> 하게 물 썬 오느라
<初/三20b>	漱之	<u>양치</u> (養齒)질하게 물 썬 오느라
<校訂/236>	漱之	<u>양치</u> (養齒)질하게 물 썬 오느라

‘블>플’, ‘브래>프래’와 같은 고유어의 변화는 물론 ‘동>통(桶)’ ‘양지덜>양치(養齒)질’과 같은 한자어에도 나타난다. 그리고 이 평음의 격음 음소화는 근대 시기에는 이미 완성된 것으로, [3074]의 예처럼 어중에서도 자유롭게 나타난다.

[2264]

<苗/二27b>	菘	비치는 <u>짐치</u> 허여 먹습니
<ソ//二27b>	菘菜	비치는 <u>침치</u> 듯고니

<初/二20b> 菘菜 비추는 김치 듯코니
 <校訂/060> 菘菜 비추는 김치가 도커니

[3651]

<苗/三47b> 菹 팀치는 니거야 마시 식금々々호여 뜻스오니
 <濟/三84a> 菹 팀치는 마시 식금々々호느니
 <初/三58a> 菹 김치가 마시 시금시금허오
 <校訂/252> 菹 김치 마시 시금시금호오

고사본류인 <苗>에는 ‘팀치’의 ‘ㄷ’이 격음화한 ‘팀치’의 형태도 보이지만, ‘ㄷ’이 구개음화한 ‘침치’로 평음으로 나타나는 예가 있다. 이에 비하여 증보본류에서는 모두 격음화한 ‘침치’나 ‘팀치’만 나타나고, 이것이 간본류에서는 현대어와 같은 ‘김치’로 수정되었다.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苗>와 증보본류를 통해서 평음의 격음화 현상을 통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語彙史的으로는 ‘팀(침)치>팀(침)치>김치’의 변화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 평음의 격음화도 경음화와 마찬가지로, 일부 사본류와 간본류에서 과잉 격음 표기의 예가 보인다.

[1653]

<苗/一49a> 麩 코를 미이 코오니 듯기 슬희여 껏터 줌 자지 못호올쇠
 <杼/一57a> 麩 코를 미이 코오니 듯기 슬희여 껏터셔 자지 못호올쇠
 <初/一45a> 麩 코를 미우 고니 득끼시려 껏터셔 줌 잘 슈 업짜
 <校訂/114> 麩 코를 대단(大端)히 고닛가 듯기 실혀 껏헤셔 줌 줄 슈(手) 업다

[3172]

<苗/三13a> 俎 도마에 노흔 고기 칼을 저허허라
 <初/三26a> 俎 토마에 오른 고기가 칼을 저어허라
 <校訂/212> 俎 도마에 오른 고기가 칼을 저어호겏느나

[1653]의 예처럼 고사본류 <苗>와 증보본류 <杼>에 보이는 ‘코오니’는 ‘고오니’의 어두 격음표기로, 음성적으로 평음과 격음을 구별하기 어려운 일본어의 간섭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잉 격음 표기는 ‘토마’의 경우와 같이 초간본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역시 표기상의 문제로 다룰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3) 모음 ‘ㅏ’와 ‘ㅑ’의 相通

17세기 국어에서는 제2음절에서 모음 ‘ㅏ’와 ‘ㅑ’의 상통이 보이는데, 이것은 당시 표기자들이 ‘ㅏ’와 ‘ㅑ’에 대한 의식이 희박했음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전광현1967:86). 이러한 현상은 『交隣須知』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특히 초간본에서는 이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ㄷ’를 선호하고, 교정본에서는 ‘ㄱ’ 쪽으로 통일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는 ‘ㄷ’와 ‘ㄱ’형이 대응하는 부사어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편의상 좌측에서부터 苗代川本>初刊本>校訂本の 예로 하고, 두 가지 語形 중 좌측의 것이 우세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 는 서로 비슷한 빈도수임을 나타낸다)

믹오 > 믹우, 믹오 > 믹오
 너모 > 너무, 너모 > 너모
 더욱, 더욱 > 더욱, 더욱 > 더욱
 아모리 > 아무리, 아모리 > 아모리
 즈로 > 즈루, 즈로 > 즈로
 서로 > 서루=서로 > 서로
 바로 > 바루=바로 > 바로
 계오 > 겨우, 겨오(계오) > 겨오
 도로혀 > 도루여 > 도로혀

결과적으로 초간본에서의 ‘ㄷ’를 교정본에서 ‘ㄱ’로 수정한 것이 되는데, 이 ‘ㄷ>ㄱ’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해석할 만한 근거를 필자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즈루, 서루, 바루’와 같이 당시 일반적이지 않은 어형을 버리고 교정본에서 보다 일반적인 어형을 선택하였거나⁵⁾, 校訂者가 ‘도루여’와 같이 ‘ㄷ’형을 보다 방언적인 요소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⁶⁾.

[4581]

<苗/四42b> 謀害 모해허려 허다가 도로혀 제게 우환이 낫습니
 <初/四42b> 謀害 모해허려 허다가 도루여 제게 환이 낫네
 <校訂/303> 謀害 늬을 모히(謀害)허려다가 도로혀 제게 히(害)가 되엿니

대체적으로 교정본에서의 이 ‘ㄱ’형이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된 부사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⁷⁾.

5) 『李朝語辭典』(유창돈)이나 한글학회편 『우리말 큰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17세기국어사전』에도 이 형태의 사용례는 나와 있지 않다.

6) 도로혀 : 경남(동래 부산) 방언(小倉進平『朝鮮語方言の研究』), 도루혀: 경북(청송) 방언(김형규『韓國方言研究』)

7) 이와 같은 교정본의 부사는 일부를 제외하고 18,19세기 언어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고어스턴』(박재연)에서도 그 사용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표기적인 측면

『交隣須知』의 표기를 한국어 표기법의 변천사라는 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사본류와 간본류 모두 일부의 경우(예를 들면 체언의 말자음 ‘ㅅ’)를 제외하고는 형태소의 원형을 밝히는 分綴表記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편무진2005a: 243-251 참조). 특히 교정본에서는 분철표기의 성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모음 간 有氣音 表記, 다시 말해서 語辭나 語節 안(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에 나타나는 激音과 관련한 형태음소적인 重綴表記가 표기상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ㅎ終聲體言의 표기도 사본류와 간본류 사이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이하 『交隣須知』의 표기에 관해서는 졸저(2005a: 261-267)에서 표기의 전체적인 경향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특징적인 부분을 개요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有氣音 表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표기상의 특징적인 부분이란, 초간본과 비교하여 교정본에서 有氣音 要素인 ㅎ음의 표출 예가 많다는 것이다. 편의상 초간본의 유기음 표기를 중심으로 한다.(> 의 좌측은 初刊本, 우측은 校訂本의 경우로, 각각의 표기가 초간본에서 교정본으로 변화한 양상을 나타낸다)

1) 유기음 「ㄷ」; ㅅ-ㅌ(ㅌ) > ㅅ-ㅎ

[2505]

<初/二37b> 水路 슈로는 비록 쉽게[케] 가도 위티(危殆)하니 뭇트로 가거져 허옵네다

<校訂/190> 水路 슈로(水路)는 아모리 쉽게 가더라도 위티(危殆)하여 뭇호로 가려 허옵네다

위의 예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초간본에서의 ‘ㅅ-ㅌ’ 표기가 교정본에서는 ‘ㅅ-ㅎ’에 의한 「ㄷ」 유기음 표기의 예가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유기음 계열 자음 /k, t, p, c/와 /h/의 합성으로 간주한 재음소화(再音素化; rephonemicization) 인식에 의한 표기의 일환으로(곽충구1980:16 참조), 주로 19세기 이후에 나타난다(김중진1986:64). 曲用과 마찬가지로 活用語에 있어서도 같은 경향이다.

드토다 : 듯투어<初/四09b> > 듯호아<校訂/279>

졸다 : 더욱 굿튼<初/三07b> > 쪽굿흔<校訂/240>

참고적으로 고사분류 <苗>는 초간본과 같은 경향이다.

2) 유기음 「교」 ; ㅂ(ㅅ)-교 > ㅂ-ㅎ

[4077]

<初/四06b> 跪 쓸너안즈면 무릅피 밋우 압푸외다

<校訂/130> 跪 쓸어안즈면 무릅히 밋오 압후외다

위의 예문의 ‘무릎 : 무릅피>무릅히’, ‘아프다 : 압푸다>압후다’와 같이 초간본(사본류도 마찬가지로)에서는 ‘ㅂ-교’ 표기가 일반적인 것에 대하여 교정본에서는 ‘ㅂ-ㅎ’ 표기로 통일되었다. 이 역시 18,19세기에는 ‘ㅂ-ㅎ’ 표기가 유기음 「교」의 주된 표기였다(김중진1986:65). 다른 단어의 예를 2,3 제시한다.

놀다 : 놀피<初/四33b> > 놀히<校訂/292>

거품 : 찻풀<初/二41a> 썸풀<再/二40b> > 겁홀<校訂/266>

거품 : 겁품<初/二42b> > 겁흠<校訂/258>

3) 유기음 「크」 : ㄱ(ㅅ)-크 > ㄱ-ㅎ

[2566]

<初/二36a> 板牆 판장(板牆)을 허니 서로 막키여 돛스외

<校訂/198> 板牆 판장(板牆)을 허니 서로 막혀 돛스외다

유기음 「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밖의 예.

박퀴 : 박퀴<初/三37b> > 박휘<校訂/202>

지키다 : 짓키고<初/一42a> > 직회고<校訂/100>

닉히다(꺾) : 닉키는<初/三57a> > 닉히는<校訂/175>

4) 유기음 「츠」

본래 ‘ㅌ’이 구개음화한 예의 경우가 대부분으로, 교정본에서 재음소화한 ‘ㅎ’의 예는 극소수이다.

[2274]

<初/二21a> 田 밧치 거니 돏다
 <校訂/217> 田 밧히 걸어서 도타

이처럼 有氣音을 末音으로 하는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助詞나 語尾가 올 경우, 근대 전기에 있어서는 주로 ‘곶티, 곶트니’와 ‘곶희, 곶히니’의 두 유형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前者는 선행음절말에 ‘ㅂ, ㄷ, ㄱ, ㅅ’으로 파열음의 폐쇄지속을 나타내고, 조사나 어미의 어두에 어말자음의 실제 발음을 반영한 일종의 중철표기로 근대기에 일관되게 사용된 표기법이다(홍윤표1994:259-269 참조). 한편 後者는 유기음 ‘ㄱ, ㅌ, ㅍ, ㅊ’을 무기음과 ‘ㅎ’의 결합으로 인식하는 재음소화에 의한 표기이다⁸⁾. 이와 같은 표기법은 18세기 말부터 흔히 나타나게 되나 19세기에 와서는 큰 세력을 가지지 못하였다(홍윤표1994:264). 그러나 19세기 당시에도 ‘ㅍ’의 ‘ㅂ-ㅎ’ 표기가 일반적이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교정본 당시에도 유기음의 재음소화 표기 의식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음의 예처럼, 교정본에서 어간까지의 형태를 표기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도 그 이전의 초간본과 차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1593]

<初/一41a> 朋友 벗을 사귀거든 유신케 허여야 올쏘오니
 <校訂/098> 朋友 친구(親旧)를 사귀거든 유신(有信)히게 허여야 올스외다

초간본이 前代의 사본류와 비교하여 보다 실제 발음을 반영한 表音的 表記를 지향한 것에 대하여, 교정본에서는 가능한 한 語源 또는 語幹의 語形을 중시하는 形態的 表記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근대시기의 形態音素的 表記가 현대의 형태적 표기로 옮겨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정본에서 당시의 언어현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한 편집의도를 엿볼 수 있다.

(2) 硬音과 激音 表記

『交隣須知』에서 발음과 표기 사이에서 표기법상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는 것은 <苗>에서의 硬音과 激音에 관련한 표기이다. 주로 ‘아니하다, 못하다, 말다’ 등과 어울려 앞의 내용을 부정하는 연결어미 ‘-지’의 표기에서 많이 나타난다.([]의 형태가 原文에서의 표기. 이하 동일)

8) 홍윤표(1994:264)에 의하면, 이와 같은 재음소화 표기는 실제 음성의 현실에서 유기음이 약화되어 나타날 때를 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4323]

- <苗/四22b> 慎 삼가흐면 양화가 몸의 밋지[치] 아니흐오니
 <ㄹ/四34a> 慎 삼가삼으면 몸의 잉화(殃禍)가 밋지[치] 아니흐오니
 <初/四24b> 慎 상가면 몸에 양화(殃禍)가 밋지 아니허리라
 <校訂/287> 慎 삼가흐면 위타(危殆)흔 일이 밋지 아니흐오리다

[3019]

- <苗/三02b> 被 님엇 거시 열워 뵈니 칩지[치] 아니흐온가
 <ㄹ/三25b> 被 님은 거시 열워 뵈니 칩지 아니흐온가
 <初/三17a> 被 님은 거시 열버 뵈니 칩지 아니허온가
 <校訂/232> 被 님은 거시 엷어 뵈니 칩지 아니흐온가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말음이 ‘ㄱ, ㅅ, ㅂ’과 같은 閉鎖音일 경우에 後接하는 ‘지’는 경음으로 발음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실현되는 경음을 격음 ‘치’로 표기한 예가 <苗>에 대략 30여 군데에 나타난다. 또한 다음의 예처럼, 모음으로 끝나는 開音節 뒤에서 평음(정확하게는 ‘유성음’)으로 발음되는 경우에도 격음 ‘치’로 표기한 예들이 역시 약 30여 군데가 된다.

[1841]

- <苗/二04b> 啄 출하로 뚝의 입의 뿔지연덩 쇠 밋치 되지[치] 말라
 <ㄹ/一73b> 啄 출하로 뚝의 입의 뿔지연정 쇠 밋치 되지 말니
 <初/一58a> 啄 출라리 뚝의 입[임]이 뿔찌연정 쇼의 뒤는 되지 말라
 <校訂/081> 啄 출아리 뚝의 입이 뿔지연정 쇼의 뒤는 되지 마라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다음과 같은 단어 안에서도 일부 보인다.

[1479]

- <苗/一36a> 倦 게올러 낫잠[춤] 자기에 학질(瘡疾)을 어덧는가 시브외
 <ㄹ/一43b> 倦 게올러 낫줄 자기로 학질을 어덧는가 시브외
 <初/一34b> 倦 게올너 낫줄 자기에 학질(瘡疾) 어덧는가 시푸외
 <校訂/298> 倦 게올너 낫잠만 자다가 학질(瘡疾)을 어덧는가 보외다

그러나 위와 같은 <苗>에서의 표기상의 혼란은 刊本類에 와서는 상당히 완화되는 양상이다. 가령 초간본이나 교정본에서는 ‘-지’와 관련해서는 거의 맞춤법에 맞게 표기되었다. 대신에 부사형 연결어미 ‘-게’의 경우에는 경음으로 발음되는 환경에서 ‘-케’로 격음 표기한 예가 초간본에 5예 정도 보인다. 재간

본에서는 그것이 경음표기로 수정되었다.

[2188]

<苗/二21a>	豆	팥	밥	불게	지이읍소
<濟/二20a>	豆	팥	밥	불게	지이읍소
<初/二15a>	豆	팥	밥을	불게[케]	지읍소
<再/二15a>	豆	팥	밥을	불쌌	지읍소
<校訂/058>	豆	팥	밥을	불게	깃게

결과적으로 <苗>에서의 경음·격음표기의 혼란상태가 증보분류를 거쳐 초간본으로 가면서 정돈이 되고, 교정본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정비된 형태로 수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이 격음표기를 매개로 한 평음과 경음의 표기법상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交隣須知』라는 한국어 학습서의 轉写나 편집에 관여한 일본인들의 한국어 능력의 미숙함, 다시 말해서 일본어에는 평음·격음·경음 간에 음소적 대립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 표기상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해 쓰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3) ㅎ終聲體言

중세 한국어에서 ㅎ末音을 가진 ㅎ중성체언은 약 80여 개가 있었으나, 근대 한국어에서 이 ‘ㅎ’의 탈락현상이 진행된 결과 현대 한국어에서는 ㅎ중성체언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고유어의 ㅎ중성은 有聲子音(ㄹ, ㅁ, ㄴ, ㅇ)과 母音 아래에만 통합될 수 있고, 자음의 경우에는 ‘ㄹ’ ‘ㄴ’ ‘ㄴ’ 다음에 오는 순서대로 탈락되고, 모음 다음에 오는 것이 맨 마지막까지 남게 된다(홍윤표 1994:233-240 참조). 결과적으로 19세기 말까지 어간말음 ‘ㅎ’이 표기되는 명사는 모음 아래에 ‘ㅎ’이 연결되는 일부 명사와 ㄹ음 다음에 ‘ㅎ’이 오는 ‘길, 둘’뿐이었다⁹⁾. 『交隣須知』에 나오는 ㅎ중성체언의 예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9) 홍윤표(1994:238)에 의하면, 모음 아래에 ‘ㅎ’이 연결되는 것은 ‘나라, 바다, 흥나’와 같이 어간말 모음이 ‘ㄴ’인 2음절어, ‘ㅈ(地), 나(年), 내(川), 우(上), 뫼(山), 네(四)’인 것과, ㄹ음 다음에 ‘ㅎ’이 오는 1음절어 ‘길(道), 둘(二)’뿐이었다고 한다.

		苗代川本	初刊本	校訂本
모음+ㅎ	우(上)	우ㅎ(8) 위ㅎ(1)	우ㅎ(9)	우ㅎ(13)
	모(隅)	모ㅎ(3)	모ㅎ(1)	모ㅎ(1)
	뒤(後)	뒤ㅎ(3)		뒤ㅎ(1)
	ㅎ나(一)			ㅎ나ㅎ(1)
	바다(海)	바다ㅎ(5)		
	나라(國)	나라ㅎ(4)		
	되(山)	되ㅎ(3)		
	세(三)	세ㅎ(2)		
	자(尺)	자ㅎ(2)		
	코(鼻)	코ㅎ(1)		
	요(褥)	요ㅎ(1)		
	노(繩)	노ㅎ(1)		
	짐바(卜繩)	짐바ㅎ(1)		
짜(地)	짜ㅎ(4) / 쌍ㅎ(3)			
자음+ㅎ	길(道)	길ㅎ(5)		
	둘(二)	둘ㅎ(1)		
	뜰(庭)	뜰ㅎ(1)		
	하늘(天)	하늘ㅎ(1)		
	남(他)	남ㅎ(1)		
	안(內)	안ㅎ(1)		

우선 苗代川本の 예를 보면, 모음 뒤에 ‘ㅎ’이 오는 명사의 예가 대부분이고, 有声子音 아래에서 ‘ㅎ’이 사용된 예는 ‘길ㅎ’를 위시한 ㄹ음에 이어지는 몇몇 어휘에 제한적으로 나타난다¹⁰⁾. 이것은 예를 들면 ‘쌍ㅎ’과 같이 자음으로 끝나는 독립형 체언에서 먼저 ㅎ탈락이 일어나고, 이어서 모음에 이어지는 有声의 환경에서 ‘ㅎ’이 탈락되어 가는 당시의 ㅎ중성체언의 변화상을 반영하는 표기로 보인다. 이것이 간분류에서는 ‘우ㅎ’를 중심으로 한 몇몇 어휘에만 보수적인 ㅎ중성표기가 보일 뿐 나머지는 모두 현대어와 같은 형태가 되었다.

[1223]

- <苗/-16b> 上 되 우회 오르면 디마도가 썩히 뵈옵니
 <対/-20b> 上 되 우회 오르면 디마쥬가 썩히 뵈옵니
 <初/-17b> 上 되 우회 오르면 스방이 다 뵈옵네다
 <校訂/025> 上 산(山) 우혜 슈목(樹木)이 참턴(參天)ㅎ였다

[3078]

- <苗/三06b> 巾 슈건을 쌍회 구을이지[치] 말고 뭇독의 걸혀라
 <濟/三31b> 巾 슈건을 쌍의 구을리지 말고 뭇독의 걸어라

10) 이러한 경향은 증보분류에서도 인정된다(편무진2005:270 참조).

<初/三21a> 巾 슈건(手巾)을 쌈에 굴니지 말고 못세 걸어라
 <校訂/236> 巾 슈건(手巾)을 쌈에 굴니지 말고 못세 걸어라

결국 苗代川本이 성립되어 전승되어 온 18세기에는 아직 ㅎ말음 어간의식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¹⁾. 그리고 苗代川本에서의 이러한 ㅎ말음어간의식은 다음과 같이 한자어에 ㅎ중성을 사용한 과잉표기의 예에서도 엿볼 수 있다.

[1168]

<苗/一13a> 明々後日 글피는 연향히니 그리 아옵소
 <ア/一16b> 明々後日 글피는 연향이니 그리 아옵소
 <初/一13b> 明々後日 글피는 연향이니 그리 아옵쇼셔
 <校訂/021> 再々明日 글피는 잔치를 홀 터이니 부디 오시오

개화기 시기의 교과서류에서 ‘ㅎ’이 표기되는 어휘는 ‘짜(地), 우(上), 나라(国), 안(内), 하나(一), 가(辺)’ 등 몇 개에 국한되며, 또한 동일 문헌에서도 ‘ㅎ’이 탈락된 형태와 混記되어 있다(김형철1997:50). 따라서 이 당시에 ‘ㅎ’ 표기형의 음운론적 의미는 거의 없고 단순히 표기적인 문제로 남게 된 것으로 보인다.

5. 어법적인 측면

語法的인 측면에서 볼 때, 『交隣須知』의 사본류와 간본류에서 두드러진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 간본류에서의 ‘허다’와 종결어미 ‘-다’의 표출이다. 우선 ‘허다’는 그 이전의 증보본류까지의 ‘허다’를 초간본에서 ‘허다’로 一新한 결과이고, ‘-다’는 재간본에서 종결어미 ‘-외’나 ‘-네’에 다시 어미 ‘-다’를 첨가한 형태로 편집한 결과이다. 이하 간본류에서 多用된 ‘허다’와 어미 ‘-다’의 첨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허다’와 ‘허다’

‘허다’는 동사와 보조동사, 그리고 접사로서 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로도 기능하는 단어이다. 그런데 초간본에서는 그 이전의 사본류에서도 사용되어 오던 이 ‘허다’의 어간(어근) ‘허-’를 ‘허-’로 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初刊本에 비하여 再刊本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서 결국 재간본에서는 ‘허다’로 통일되는 경향으로 파악할 수 있다¹²⁾. 한편 교정본에서는 이

11) 辻(1997:98-99)에 의하면 『捷解新語』에도 原刊本에는 ㅎ중성체언이 아직 많이 존재하는데, 改修本·重刊本을 거치면서 그 예도 적어지고 있다. 그러나 18세기 중반의 개수본 시대에는 아직 ㅎ말음어간의 의식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허다’를 ‘하다’로 복원하여 통일시키고 있다.

[1476]

<苗/一35b>	劣	그는 용널 <u>허여</u> 아모디도 쓸 디 업느니라
<尅/一43a>	劣	그것 용널 <u>허여</u> 아모디도 슬 디 업슨 거시로다
<初/一34a>	劣	그것시 용널 <u>허야</u> 아모데도 쓸 데 업는 거시로다
<再/一34a>	劣	그것시 용널 <u>허여</u> 아모데도 쓸 데 업는 거시로다
<校訂/283>	劣	그 익(兒)가 용널(庸劣) <u>허여</u> 아모 짝에도 쓸 데 없는 놈이 로고나

우라세(浦瀬)는 초간본과 재간본의 校訂者이다. 초간본에서 그 이전까지의 ‘-허’를 ‘-히’로 교체한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우라세가 당시의 다른 학자들로부터 부적합한 표현이라고 비난을 받았다고 한다(幣原1904:45).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고, 당시의 口語的인 언어현상을 초간본에 적극 반영하려고 한 시도가 아니었나 싶다. 다시 말해서 당시는 이미 /·/의 소멸과 함께 音素로서의 音価가 소실된 상태에서 ‘·>0’와 ‘·>1’는 隨意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19세기의 国訳 聖書類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의 탈락은 입말(口語)를 중심으로 하는 문헌에 사용되고, /·/를 유지하는 문헌은 비교적 글말(文語)을 중심으로 하여 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言衆들의 입에서 현실적으로 쓰이는 입말은 이미 /·/가 탈락되고 있으나, 주로 문헌에 기록되어지는 글말은 대체로 이전의 형태를 고수하며 그 전통을 유지하려는 보수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정길남1992:52).

또한 이 ‘허-’의 예는 「綸音」과 같은 당시의 국내자료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李樹廷의 국역 성서에서도 그러한 언어적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¹³⁾. 이수정은 당시의 우리말 체계에 상당한 식견을 가졌던 인물로, 그에 의한 번역 성서 또한 어느 정도 당시의 중앙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¹⁴⁾.

단지 우라세의 교정방식에 있어, 이와 같은 부분적인 언어현상을 전체적으로 일반화하여 적용한 편집태도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이하

12) 가령 동사나 보조동사로 쓰이는 ‘허다’의 예를 보면, 초간본에 쓰인 전체 175예 중에서 재간본에서도 ‘허-’로 나타나는 것은 92예, ‘히-’로 나타나는 것은 거의 대등한 83예이다.

13) 李樹廷 訳의 『마가복음』(1884)의 몇 군데에는 /·/가 탈락하여 현대어와 같은 ‘하’가 보이고, 동시에 많은 수의 ‘허’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정길남1992:267-268 재인용).

짜르지 못허게 허시고 <막 5:37>

읽지 못허다 허여스되 <막 2:26>

14) 訳者 이수정은 1882년 임오군란 뒤 수신사 박영효를 따라 일본으로 갔고, 동경대학에서 조선어 강사를 역임하다가 1884년 일본에서 『금오신화』가 발견되었을 때 跋文을 썼던 인물로, 당시 중앙에서 활동하던 상당한 유식계층이었던 것 같다(정길남1992:256).

초간본과 재간본은 / 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교정본에서 형태적으로 대응하면서 異形態인 경우에만 > 다음에 표시하기로 한다.

(2) 서술형 종결어미 ‘-다’

『交隣須知』에서 일반적인 서술형 종결어미는 ‘-외’와 ‘-네(니)’이다. 이 ‘-외’와 ‘-네’의 형성과정을 각각 ‘-으오이다>-오이다>-외이다>외’, ‘-느이다>-니이다>니’로 추정하고 있는데(이영경1992:53-58 참조), 초간본에서는 사분류와 마찬가지로 ‘-외’나 ‘-네’이었던 것이 재간본에서는 ‘-다’가 첨가된 형태로 文이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네/-네다

우선 용례의 일부를 제시한다.

[1078] 허옵네/허옵네다>허옵네다

[2029] 잡피고져 허옵네/잡피고져 허옵네다>잡히랴고 허옵니다

[3838] 취심(推尋)허엿습네/취심(推尋)허엿습네다>취심(推尋)허엿습니다

[4299] 회복허엿습네/회복허엿습네다>회춘(回春)허엿습니다

종결어미 ‘-네’는 선어말어미 ‘-옵-’과, 그리고 과거를 나타내는 ‘-얏/엿-’의 경우에는 ‘-습-’과 함께 쓰이는 공손한 표현인데, 재간본에서는 이 ‘-네’ 형태에다 ‘-다’를 더하여 ‘-네다’ 형태로 종결하고 있다. 이 ‘-네’ 또는 ‘-네다’의 ‘-네’는 현대어 ‘-니다’의 옛말 ‘-니’의 異形態로, 교정본에서는 원칙적으로 ‘-니-’의 형식을 취하며, 재간본의 ‘-다’종결어미로 통일하고 있다. 이 ‘-네(니)’는 대등계칭의 서술어미로, 『捷解新語』의 原刊本(1676년)은 물론 重刊改修本(1781년)에도 ‘-니’가 일반적이다.

다 無事히 渡海하시니 아릅답다 니르시옵넌 <원간본; 二/1b>

다 無事히 御渡海하시니 긴비 너기옵넌 <중간개수본; 二/7b>

『交隣須知』의 사분류와 초간본의 ‘-네’는 이러한 근대어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외/-외다

현대어의 ‘-니다’ ‘-습니다’에 해당하는 서술형 종결어미 ‘-외’의 경우도 초간본까지는 ‘-외’를 취하고 재간본에서는 ‘-외다’의 형태로 통일하고 있다. 교

정본에서는 기본적으로 재간본의 ‘-외다’ 형식을 답습한다고 할 수 있다. 단지 ㄱ, ㄴ, ㄷ, ㅎ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나 형용사 어간(본서에서는 주로 형용사) 뒤에서는 ‘-스외(다)’이다. 일부 예를 제시한다.

- [1154] 슈상(殊常)허외/슈상(殊常)허외다>슈상(殊常)허외다
 [1087] 돛스외/돛스외다>돛스외다
 [2405] 눈 오는 듯허외/눈 오는 듯허외다>눈이 오는 것 꺾스외다
 [3251] 시원허외/시원허외다>식원허다

그런데 이 ‘-외’는 17세기에는 대등계열에서 감탄서술로 비교적 활발히 사용되었는데, 18세기에 다만 잔재적 형식으로 쓰이다가 19세기에는 소실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염광호1998:235). 역시 『捷解新語』에도 용례가 보인다.

- 나르니는 一端도 자블 公木이 업스외 <원간본; 四/10b>
 나무니는 一端도 잠암즉흔 公木은 업스외 <중간개수본; 四/14b>

한편 ‘-외다’는 ‘-오이다’의 축약형으로, 국내자료에서는 주로 아주 높임의 대상에서 쓰였으며, 『捷解新語』에도 그 예가 보인다.

- 편지 스연이 과연 들즈오시드시 그러허외다 <중간개수본; 十下/4b>

결국 이 서술형 종결어미는 근대시기에 ‘-외>-외다’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초교본에서 일반적으로 종결어미 ‘-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본류의 전통을 잇는 일종의 보수적인 표현형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교본에서는 그러한 시대적으로 동떨어진 초간본에서 탈피하여 당시의 일반적인 ‘-다’형의 서술 종결 형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초간본에서의 ‘-네’와 재간본에서의 ‘-네다’도 그러한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교정본에서는 당연히 ‘-다’이다.

6. 어휘적인 측면

표제어에 대한 검토는 前稿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외의 어휘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모든 異本 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에는 副詞가

罫を入れなくても 沢山の 行を 真直に 書くから 確かに 稽古した
字だな。

(2) ㄹ장(ㄹ장)

『交隣須知』에서 특기할 만한 부사로는 ‘ㄹ장(ㄹ장)’이 있다. ‘ㄹ장(ㄹ장)’도 ‘과연’과 마찬가지로 10여 개의 사용례가 나오는데, 교정본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부사로 대체된다.

ㄹ장(ㄹ장) > 미오(8), 춤(1), 도더히(1), 대단히(1)

다시 말해서, 근대어 시기에 다양한 뜻(부사)으로 사용되어 오던 이 ‘ㄹ장(ㄹ장)’이 교정본에서 주로 ‘미오’로 교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필사본류에서는 「たいへん, たいそう(매우)」의 의미를 가지는 「いかう」가 대역어로 사용되었으며, 초간본에서는 「最も(가장)」의 사용예도 보인다. 그러나 교정본에서 ‘미오’는 모두 「たいへん, たいそう」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당시 ‘ㄹ장’이라는 부사가 현대어의 ‘매우’와 같은 ‘미오’를 중심으로 의미 분화한 과정을 엿볼 수 있다.

[4687] ㄹ장 > 미오

<苗/四50b>	巍々	외々히여 ㄹ장 놓스외 ギトシテ イカフ タコウコサル
<初/四50a>	巍々	외々히여 ㄹ장 놓꺼든 巍々トシテ 最モ タカイ
<校訂/322>	巍々	외외(巍々)히여 미오 놓꺼든 巍々として 高い。

이처럼 본서에서 다용된 ‘과연’과 ‘ㄹ장’이라는 두 개의 부사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초간본까지의 이본에서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던 형태가 교정본에서 세분화된 부사로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어휘의 의미 분화도 근대어의 한 특징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홍윤표1994:43-44 참조).

(3) 나무

曲用과 관련하여 명사 어간의 비자동적 교체를 지양하고 어간의 단일화를 성취하려는 경향은 이미 15세기에 시작되었지만 근대에 와서 그 경향이 뚜렷해졌다(이기문1972:208). 현대어의 ‘나무’가 대표적인 예인데, 『交隣須知』에서는 어간의 곡용형으로 ‘남기’와 ‘낭기’, 단일화형으로 ‘나모’와 ‘나무’가 다음과 같은 비율로 나타난다.

		苗代川本	初刊本	校訂本
곡용형	남기	24(8)	16	12
	낭기		3	
단일화형	나모	14(8)		
	나무		18(5)	17(5)

* ()은 ‘나모납’과 같은 복합어의 예

<苗>에서는 곡용시 ‘남기’ ‘남글’과 같은 명사 어간의 비자동적 교체형을 주로 하면서 ‘나모’와 같이 독립된 형식도 함께 나타난다. 한편 초간본과 교정본에서는 ‘남기’와 같은 형태와 현대어와 같은 ‘나무’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세기 말에도 아직 ‘남기’와 같은 곡용형이 여전히 사용되었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기문(1972:208)에 의하면, 후기 근대어까지도 ‘남기’와 같은 명사의 곡용형이 散見되나, 그 말엽에 와서 ‘나모’로 단일화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1242]

- <苗/-18a> 巖 바회 우회 남기 나니 괴이(怪)하옵데
 <初/-18b> 巖 바위 우회 남기 나니 이상(異常)하오
 <校訂/034> 巖 바외 우회 나무가 나니 이상(異常)하오

[2394]

- <苗/二36b> 株 혼 쥬 두 쥬라 하고 나모를 헤느니라
 <初/二28b> 株 혼 쥬 두 쥬라 하고 나무를 세느니라
 <校訂/046> 株 혼 쥬(株) 두 쥬(株)라 하고 나무를 세느니라

<苗>에서는 현대어적인 ‘나무’의 예가 보이지 않고, 간분류에서는 근대어적인 ‘나모’의 예가 보이지 않는 것 역시 당시의 언어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7. 마무리

18세기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는 原祖本系 古写本類인 苗代川本の 한국어가 19세기 말경의 初刊本과 20세기 초의 校訂本에서 변화를 보인 음운, 표기, 어휘, 어법상의 두드러진 언어현상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세 異本에서 유기적으로 표출된 각각의 언어현상들은 당시의 언어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交隣須知』의 한국어는 근대어에서 현대어로 옮겨가는 과도기적인 언어현실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그 언어적·문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초간본에서 약간 보수적인 언어현상이 보이지만,

그러한 부분도 당시의 언어현실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단어가 아닌 문 레벨에서 보았을 때도, 전 시대의 사본류와 초간본의 그것에 비하여 교정본에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 그것은 교정본에서 용례문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連體修飾 成分이나 連用修飾상의 格 관계와 관련한 助詞나 語尾를 삽입한 경우이다. 이와 같은 構文的 要素의 변화에 대하여는 別稿에서 다루기로 한다.

【참고문헌】

- 고영근(1995)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탐출판사
 국립국어연구원(1996)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1 —중세 국어—』
 국립국어연구원(1997)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2 —근대 국어—』
 김형규(1982) 『韓國方言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김형주(1996) 『우리말 발달사』 세종출판사
 김형철(1997) 『개화기 국어연구』 경남대학교 출판부
 박재연(2001) 『고서어전』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염광호(1998) 『종결어미의 통시적 연구』 박이정
 유창돈(1979) 『李朝語辭典』 연세대학교 출판부
 이기문(1972) 『국어사 개설(개정판)』 탐출판사
 이영경(1992) 「17세기 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08호
 이은정(1995) 『국어학·언어학 용어 사전』 국어문화사
 전광현(1967) 『17세기 국어의 연구』 국어연구회
 전광현(1997) 「근대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2—근대국어—』 (국립국어연구원) pp.7-54
 정길남(1992) 『19세기 성서의 우리말 연구』 서광 학술 자료사
 정길남(1997) 『개화기 교과서의 우리말 연구』 박이정
 편무진(2005a) 『交隣須知の基礎的研究』 제이앤씨
 편무진(2005b) 『諸本對照 交隣須知』 제이앤씨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1995) 『17세기 국어사전』 태학사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홍윤표(1994) 『근대국어연구(Ⅰ)』 태학사
 홍종선(1998) 『근대국어 문법의 이해』 박이정
 小倉進平(1944) 『朝鮮語方言の研究』(上·下) 아세아문화사 영인(1973)

幣原坦(1904) 「『校訂交隣須知』の新刊」 『史学雑誌』 15-12

辻星児(1997) 『朝鮮資料における「捷解新語」』(岡山大学文学部研究叢書16), 岡山大学文学部

土井洋一(1982) 「近代の文法 I」 『講座国語史4 文法史』 所収, 大修館書店

安田章(1973) 「重刊改修捷解新語解題」 『三本対照 捷解新語』 积文・索引・解題篇 所収, 京都大学文学部

要 旨

18世紀の言語を反映している原祖本系の古写本類である苗代川本の韓国語が19世紀末ごろの初刊本と20世紀初の校訂本において変化を遂げた音韻、表記、語彙、語法上の際立った言語現象について検討した。その結果、この三つの異本において有機的に表出しているそれぞれの言語現象は当時の言語現実を充実に反映しているものと見られる。つまり、『交隣須知』の韓国語は近代語から現代語に移っていく過渡期的な言語現実を充実に現しているものとしてその言語的・文献的な価値が認められると思う。もちろん初刊本においてやや保守的な言語現象が見えるが、それもまた当時と言語現実の一面と言えよう。

キーワード：交隣須知, 苗代川本, 初刊本, 校訂本, 과도기적 한국어

투 고 : 2013. 5. 31
1차 심사 : 2013. 6. 15
2차 심사 : 2013. 7. 6